

외원에 대한 교회병원으로서의 의견



부산 성분도병원

이 라 우 데 스 수녀

<외원에 대한 교회병원으로서의 의견>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다루게 되었음으로 저는 이 “외원”이라는 말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고 받는 두 원리의 구성체로 만드셨습니다.

즉 give and take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 범칙에 속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곧 주는 생활인 동시에 또한 받는 생활인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자의 손에서 우리의 건강이나 재능, 또한 물질적인 병원이라는 이런 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우리는 응당 이웃에게 우리의 가진 바를 나누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는데 있어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생은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사는 하나뿐인 이 세상은 좀 더 하느님 뜻에 맞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미소한 형제 중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베푸는 것이다”(마루 23/4)라고 강조하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바를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의 계명을 명하셨고 또한 당신 친히 고통중에 있는 자나 병자를 찾아 치유해 주시며 몸소 표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사랑의 계명을 이어 받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다루어 왔고 발전시켜 중세에 이르러서는 최초로 남아 수도단체에서 의료 구호 시설

을 설치하여 Hospital이라는 명목아래 병자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授와 愛의 인간 관계를 발족시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도회 정신의 계승을 받은 저의 부산 St. Benedict Hospital도 1951년 6.25 다음 해 북간도 연결지방에서 봉사하던 의료 교육 기관을 공산정권에게 모두 빼앗기고 피난 온 14명의 한국 수녀들의 손으로 부산 땅에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25동란으로 가산을 잃고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 동포 전제민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상황과 요구에 따라 두칸방으로 성 분도 병원은 개설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뒷받침도 없고 민족을 초월한 사랑의 授와 受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바다 건너 구호의 손길이 뻗어 왔던 것입니다. N. C. W. C., O. A. C., AFAK 또는 주한 미군들의 온정어린 원조로 저의 병원도 부분적이거나 건축재료와 의료시설을 받았으며 Swiss모원으로 부터의 막대한 원조기금으로 건축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1955년) 총 건평 520평의 4층건물이었습니다. 다시 1960년 490평의 5층건물을 완공하여 시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1000여명이라는 외래환자로 붐벼 봉사의 희열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희 병원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종합병원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1965년 저희 병원은 교육수련병원으로 발족했

고 100 beds를 가진 교육병원으로 주고 받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7.4 공동생명 이후 우리의 전투는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경쟁이나 사회복지 경쟁 즉, 어느 쪽이 더 잘 사는 제도이며 잘 살고 있고 또 잘 살게 만들 수 있는냐 하는 지의 경쟁이 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 우리가 가톨릭 병원에서도 사람의 복지 사연을 골고루 배워 분화과의 경쟁이 아닌 참다운 의미에서 질병이 없는 삶이 좋은 나라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 농촌의 상병자들 가운데 1,000명중 약 148명이 한달에 한번씩 병에 걸리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중 28%가 전혀 치료의 기회를 못얻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1.8%만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이신 조덕순 선생님의 조사 보고였읍니다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 안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환자가 돈이 없어 감히 병원의 문을 못두드리는 가슴 아픈 사실도 허다합니다.

부산 교구의 어떤 본당 신부님께서서는 새로 부임하시어 신자 가정방문을 하시면서 영세인 환자들을 찾아 신부님 Sign을 주어 저희 병원으로 보내십니다. 이들은 거의가 다 중환자이어서 치료비가 몇 십만원을 초과하는 환자들이였습니다 한 본당에서 몇명씩 나오면, 부산 내에 소재하는 본당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숫자가 시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만 부산 시민 중에서는 틀림없이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종전까지도 우리 중교병원들은 외국 원조나 자선 기구 또는 뜻 있는 분들의 원조를 뒷받침 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저희 병원에는 구호과가 따로 있어 외국수녀님 한분이 외원을 얻어 직원 5인과 더불어 현재까지는 무료환자를 무난히 시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성을 벗어난 우리나라 시책에 따라 언제 지나 남의 나라로 부터 원조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형편인 현실에 있어 30%의 무료환자를 그것도 시에서 인정하는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수입 통제 및 근 20년 남지 허 무상으로 받아오던 분류 수입금지 등은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수녀들이 경영하는 비영리 병원이라는 명목 아래 큰 기대를 걸고 시내외에서 많은 불쌍한 환자들이 매일 매일 구원의 손길을 찾아 밀려오는 까닭입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자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쌍한 환자를 목격하면서도 100% 못도와 주는 우리들의 현실이 마냥 딱하기만 합니다. 또 한편 오늘날이 외원은 우리나라 사회발전과 동시에 병원 대 규모화와 함께 병상수도 늘어나고 최신시설로 의료기제도 도입되고 하여 많은 수의 환자들로 입원시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새 시설, 새 기술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육 병원에 있어서 인턴, 레지던트들에게 학술 연구 시설이나 교재 등 도입에 많은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의학계 발전에 놀라운 이바지를 해온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가톨릭 병원협회라는 신앙의 봉사 단체의 모임이니 감히 당돌하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규모화된 병원은 돈 있는 특수인들만이 갈수 있는 일종의 기업화된 병원 같은 느낌마저 들며 또한 파도경쟁으로 달리는듯 합니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교회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뜻하여 종사하는 우리 수도자들은 종전과 같은 봉사의 보람은 고사하고 굳이 이런 경쟁을 해가며 기업화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의아심마저 가지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여성으로 전락되는 느낌마저 들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병원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운영비용과 새로운 시설, 의료기등의 확장비용을 헤아린다면 경영상 손해를 보면서 운영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감가상각을 정확히 할라 치면 결손은 금할길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적자를 메꾸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 저희 병원에서는 가끔씩 많은 수의 수녀님들이 봉사하여 일반직원수

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50여명의 수녀님들(이중 10명은 예비수녀)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0%의 무료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출처는 더욱 더 부득이한 필요성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병원은 년평균 5,000만원 가까운 외국원조로 구호사업과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시설확장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의원이 끊어진다면 만일을 대처하여 특히 구호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으로써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와 같이 병원에서도 무료환자 기금을 준비하여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무료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돌보아야 할 가난한 병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의원만의 존하지 말고 우리나라 환자는 우리 국민의 따뜻한 원조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Catholic에서 보는 의원이라함은 밖으로 부터 오는 물질적 원조만이 아니고, 정신적 원조, 영

적 원조도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느때 보다 정신적 빈곤을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병원운영에 있어 정신적인 의원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인 단체 예를 들면 Region marie같은 단체를 보면 활동단원과 기도 단원이 있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Catholic의료사업도 이 기도의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도 헛되다"하신 성영 작가의 말씀을 믿어 기도와 정신적 의원을 굳혀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는 입장에 있는 우리 의료인의 마음의 철학, 마음의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마음 베푸는 우월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는자는 받는자 보다 복되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무아의 정신으로 환자에게 베푸자는 우리 의료인의 정신상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本協會 事務室 設置

가톨릭 產災病院 411號室

26-1046~8 交 41

本協會事務室을 아래와 같이 設置하였으니 여러會員病院께서는 協會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事務室所在地 : 가톨릭大學 附屬 病院産業醫學센터
産業災害病院 四層 (411號室)
서울特別市 中區 葦洞 1街 2番地
電 話.....(26) 1046~8 交41番